“시장 열 걸음보다 공직자와 함께 한 걸음이 소중”

姜시장, 7월 정례조회 편지로 소회 전달

“공직자 마음 더 충분히 살필 것” 약속

잇따른 악재 속 리더십 변화 귀추 주목

강기정 광주시장이 1일 공직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편지’를 전했다.

강 시장은 “시장 혼자 가는 열 걸음보다 공직자들과 함께 가는 한 걸음이 더욱 소중하다”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공직자들과 ‘시민 행복’을 향해 원칙의 길로 꿋꿋이 가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7월 정례조회를 통해 “최근 광주시정에 버스 파업, 지하철공사 지연, 타운홀미팅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며 “성과를 냈는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그동안 시장이 몰라줘서 섭섭한 마음도 들었죠?”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어 강 시장은 “저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혼자 열 걸음을 가려고 부단히도 애썼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 한 걸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며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더 충분히 살피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되짚고 묵묵히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의기투합의 메시지도 전했다.

전국 최초 이태원 참사 명칭 변경, 시대 변화에 발맞춘 야간 당직 폐지와 AI 당지기 도입 등으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오랜 관행을 바꿔냈고 최악의 가뭄 위기를 시민과 함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또 ‘비상경제TF회의’, ‘배민독립운동’, ‘광주경제 착착착’, ‘광주방문의 해’, ‘골목경제상황실’ 등을 통해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회, 광주의 날’, ‘주간 여의도 집무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로 대선공약 반영, 국비 확보, 국정과제 선정 등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움직여왔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국가 주도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도시철도 2호선 상부도로 개방, 복합쇼핑몰 등 민선 8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강 시장은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 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AI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밑그림 등 광주의 미래 먹거리인 AI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강 시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파제가 되겠다”며 “우리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을 지킨 광주가 더욱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치열했던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정례조회에서는 의기투합 하자는 마음을 담아 옆에 앉은 동료 직원들끼리 ‘하이파이브’를 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이처럼 강 시장이 잇따른 악재 속에서 그동안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리더십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수희 기자

임택 동구청장 지방자치 30주년 강연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1일 대전 중구청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강연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광주동구 제공〉

金지사, 국정委에 현안 국정과제 채택 건의

통합대학 의대·COP33 여수 유치 등 요청

민주당 지도부엔 추경 SOC 1천억 증액도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전남 핵심현안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3주째를 맞아 새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및 정부 조직개편 작업에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현 시점이 지역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국 최초로 통합을 이끌어낸 국립순천대와 국립목포대의 ‘통합대학교 국립의대’ 설립과 위기를 겪는 여수산단 등 석유화학·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중점 건의했다. 또한 첨단산업 입지 수요가 확보된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평 규모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방안과 고흥을 세계적인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제2우주센터 구축사업’도 요청했다.

또한 2028년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여수(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건의했다.

이 밖에 솔라시도 AI 에너지 신도시 조성, 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 ‘K-디즈니 순천’ 조성 등이 포함됐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새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등 최적지로 정부 정책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전남의 미래 발전과제가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과 면담을 갖고 지역 현안을 논의한 뒤 정부 제2회 추경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역산업 위기대응 추가 지원, 한전공대 출연금 증액 등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 추경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 추가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역 핵심 SOC 사업을 계획 기간에 완공하기 위해 정부 추경안 1천300억원에 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 1천억원 이상 추가 증액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 증액이 절실한 SOC 사업은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800억원(총사업비 6천438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비 400억원(총사업비 8천67억원), 고흥 영남-포두 국도 77호선 시설개량 60억원(총사업비 691억원) 등 5개 사업이다. /김재정 기자

광주시 ‘드림청년’ 선발 일경험 제공

16일까지 미취업청년 400명 모집

은둔형외톨이 자립준비청년 가점

광주시는 1일 “실무 중심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사업에 참여할 ‘제18기 드림청년’ 400명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5년 8월2일-2006년 8월1일 출생)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드림청년’은 매칭된 사업장에서 주 25시간씩 5개월간 자기주도형 일경험이나 주 40시간씩 3개월간 집중참여형 일경험에 참여하게 되며 광주시 생활임금 수준(세전 월 169만여원-270만여원)의 급여를 받는다.

또 참여 청년에게는 온보딩(적응지원) 교육과 맞춤형 직무 교육, 현직자 멘토링,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은둔형외톨이,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앞서 광주시는 광주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참여 사업장 드림터 300여곳을 선정했다. 참여 사업장 정보와 일경험 제공 직무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이날부터 16일 오후 5시까지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누리집에서 1차 면접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드림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해 드림터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16일 오후 9시까지 2차로 최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드림만남의 날’ 현장에서 신청 및 행사 참여도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일경험드림, 광주시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문의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단 062-531-1934·1939) /기수희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 9개월만 전격 사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200여자 분량의 짧은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1988년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중도 퇴임하는 16번째 총장이 된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급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의료시설,쇼핑쎈타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